
		<b>보 도 자 료</b>		수도권매립지 종료		
		배포일자 2022년 3월 2일(수) 총 3매	 환경특별시 인천			
담당 부서	보건환경 연구원	담당자	• 생활환경과장 방준상 ☎ 440-5631 • 담당자 유진 ☎ 440-5637			
사진(이미지)	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	
보 도 시 점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				

## 인천시, ‘악취지문’ 으로 악취원인 찾는다

-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, 악취원인 추적 위한 업종별 악취물질 특성 조사 -

인천광역시는 산업단지 주변지역에서 악취 발생 시 신속하게 배출원을 찾아내기 위한 악취추적시스템 기반 마련에 나선다고 밝혔다.

인천시 악취 민원 발생원 분석에 따르면 2021년에 발생한 악취 민원은 사업장악취 1,039건, 생활악취 676건, 원인불명 457건 등 총 2,172건으로, 이중 사업장 발생 민원이 47.8%로 가장 많았다.

악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배출원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으로 이를 위해서는 사업장별 악취물질 조사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자료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.

올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악취추적시스템의 기반 마련을 위해 주요 악취배출시설인 하수처리, 폐수처리, 목재제조, 금속제품 제조, 도장처리, 합성고무·플라스틱 제품제조 등 6개 업종의 배출구 및 주변지역의 악취물질을 정밀 조사한다.

복합악취는 5인의 악취판정요원이 후각으로 냄새를 판별하는 공기희석 관능법으로 측정하고, 지정악취물질 22종과 기타 악취물질 91종은 실시간 악취분석차량을 이용해 사업장 및 주변지역을 이동하며 분석한다.

사람마다 고유한 지문을 이용해 특정인을 가려낼 수 있듯이, 악취지문을 이용하면 업종별 악취물질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 악취 발생 시 신속한 배출원을 추적하는데 활용할 수 있고, 악취나 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시설 개선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권문주 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“악취지문을 이용한 악취추적시스템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치지 않고, 시, 군·구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.” 고 말했다.

<붙임> 관련 사진

## <붙임> 실시간 악취분석차량



(사진제공: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)